



서울에서 남북의 농민대표 화해와 협력을 논하다!

8.15 남북 농민연대 모임

지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서울에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민족대축전"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6.15를 기념해서 평양에서 개최된 행사에 이어 남과 북을 대규모 민간대표단이 오고 가면서 6.15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공동준비위원회' 주최로 준비되었다. 이번 행사는 특히 통일행사의 대중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막식과 폐막식에 남북통일축구대회를 함께 진행하면서 스포츠를 통일운동에 접목시킨 점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본다. 또한, 북측 대표단은 현충원 참배, 노무현 대통령 예방, 김대중 전 대통령 병문안, 이해찬 총리 주최 만찬 참가, 국회 방문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한층 진전된 모습을 보이면서 화제를 불러오기도 했다.

한농연, 농근맹과 농업·농민교류 사업 구체적 논의

4일간 진행된 이번 8.15 행사에 한농연 대표단으로 서정의 중앙회장, 김기철 대외협력부회장, 탁명구 사무총장 등 3인이 참가했으며, 계속된 북측 농민부문 대표단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간 진행되어온 한농연과 북의 조선농업근로자동맹과의 교류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북측에서는 내부사정으로 교류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잠시 중단되었던데 대해 유감을 표하였으며, 반드시 한농연과의 단독 교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향후 실무협의를 개성에서 갖고 교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 등을 확정하게 될 것이다.

“8.15 남북 농민연대 모임” 개최

전체 8.15행사가 진행되던 16일 오전 9시, 북측의 농민부문 대표 5인과 남측의 농민대표단을 비롯한 참관단 1백여명은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에서 8.15 남북 농민연대 모임으로 별도의 부문행사를 갖게 되었다.

북측에서는 농민분과위원회를 대표해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중앙위원회 김명철 부위원장, 김순복 부부장, 우대작 실장, 신대섭 농민분과 위원, 원창중 농민분과 위원 등 5명이 참석했다. 남측에서는 한농연 서정의 중앙회장, 전농 문경식 의장, 가농 정재돈 회장 등 대표단을 비롯해 약 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박민용 전농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전농 문경식 의장의 남



측 환영사와 북측 김명철 농근맹 부위원장의 답사, 식량주권과 농업 현안 문제에 대해 서정의 중앙회장의 연설, 북측 김순복 농근맹 부부장의 연설, 그리고 탁명구 한농연 사무총장과 북측의 신대섭 위원이 공동으로 민족통일선언문을 낭독했으며, 전체 참가자들이 “우리는 하나”라는 노래를 합창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했다.

■ 8.15 남북 농민 연대 모임 중 서정의 중앙회장 연설 요약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식량주권을 사수하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서정의

7천만 우리 민족의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농경지와 농민 등 인적, 물적 자원이 급속도로 감소하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근 세계식량기구(FAO)에서는 1977년 이후 세계 곡물 재고량이 해마다 줄어 식량 수급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다고 발표한바 있다. 현재 전 세계의 쌀 재고율만 보더라도 2001년 약 37%에서 점차 급락하면서 올해는 18%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이 주로 먹는 자포니카 쌀은 세계 생산량 중 6%만 국제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1973년과 1980년의 국제적인 식량위기로 인한 가격 폭등과 90년대 중반 북측 지역을 휩쓸었던 심각한 큰물 피해, 남측의 태풍 루사와 매미와 같은 것보다 더 큰 자연재해가 우리 한반도를 덮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농민뿐 아니라 전민족의 위기가 될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남측의 식량안보 수준은 미흡하기만 하다. 2004년 곡물자급율은 27%. 그나마 쌀을 빼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또한, 전체 수입 곡물의 60%를 카길이라는 단 하나의 곡물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측의 농지보전, 식량자급을 법제화 등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남측의 농민단체들은 정부 당국에 요구해 오고 있다. 곧 남북농업협력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된다. 처음으로 농업분야에서 남과 북의 당국 책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농업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통일은 거역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며, 민족의 통일 앞에 식량안보를 사수해야 하는 과업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의무이다.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을 위해 무엇보다 기본이 되는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우리 남북의 농민 형제들과 함께 하는 이 길에 국제정세의 변화, 한반도 주변정세 악화 등 어떠한 여건이 우리 앞을 막아서더라도 우리는 민족통일을 위한 한 방향으로 굽힘없이 함께 하도록 하자.

